

.. 시편 33편 12절에서의 '무조건적 선택'

"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; and the people whom he hath chosen as his own inheritance."

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구, 신약의 이스라엘, 곧 외부교회는 하나님의 Elect, 선택받은 백성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(롬2:25-29; 갈4:22-31, 6:16; 빌3:3).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, 문설주에 뿌린 그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의 저주를 피한 백성(출12). 출애굽 하여,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친 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. 곧 죄의, 사탄의 노예 됨에서 풀려 나와 지옥의 type인 홍해를 건너 (주 그리스도의 대속 - substitutionary atonement - 이란 바로 그분께서 이 홍해를 그 백성을 대신하여 건너신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'길'이 - 요한복음 14:6 - 된 것입니다. 그리고 대속의 특혜가 없는 애굽인들에게 홍해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이 된 것입니다) 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에서의 - 광야(벧전2:11) - 말은 사명을 수행한 후 마지막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'절차'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십니다. 그러므로 위의 구절은 마치 신약에서 에베소서 1:3-5 절을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

'Blessed'는 시편 32:1, 2절의 히브리어를 같은 구절이 인용되는 신약의 로마서 4:6, 7, 9절과 비교함에서 이 '복 있음'은 전에 공부한 산상복음의 (마5:3-11)의 그것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바로 인간의 추악한 행위 없이 내리시는 그 구원이 있는, 그 '복'이 있는 '상태'를 말합니다. 이 결론에서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영문에서는 'Blessed'로 구절이 시작되며 반복되지 않음을 유의해야겠습니다.

'민족' ('nation')은 흔히 '이방인'이라는 말입니다. 그런데 창세기 12:2과 17:4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('아브라함'이라고 불리기 전)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(신학적으로 Abrahamic, 또는 Abrahamic Covenant라고 부름). 거기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됨은 대부분의 믿음의 자녀는 바로 유대인 아닌 '이방'사람들일 것임을 예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브람과의 언약은 육의 것, 육을 따라 맺어진 것이 *아니므로* (롬2:28-29; 갈3:14-16, 18, 28-29 *갈3:18은 시33:12와 같이 '상속'/'유업'에 관한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) 이 '민족'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.

'하나님' ('God')은 창세기 1:1의 '태초에 하나님께서...'의 '하나님'입니다.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'god' (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소문자로 표기되는 '신' - 이사야서 44:8)의 복수입니다 (Eloah에 plural ending '-him'을 더한 Elohim).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"In the beginning, Gods created..."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1:26의 "Let us make men in our image"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'주' ('LORD')는 영문 King James에서 대문자로 구분하는 '여호와'입니다. 출애굽기 3:13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존함을 여쭙니다.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'I AM THAT I AM'이라고 하시며 'I AM이 보냈다고 하라'고 하시는데, 이 'I AM' ('be' 동사)에서 온 단어가 'LORD'라고도 번역되는 'JEHOVAH'이지요. Eternal, *Self-Existent* 하심을 말합니다. 참고로 하나님께 'Lord'를 붙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'주인' (lord, master, owner) 이라는 단어에서 온 'Adonai'이며 'my Lord'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..

'백성' ('people')은 인류를 나타낼 때도 있으나 창세기 17:14, 레위기 17:4에서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. 위의 '이방인'과는 의도와 nuance가 다르지요. 이 '백성'은 *거룩한 무리*를 말합니다. 또 잠언 30:24는 '작으나' '현명한'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. 성경에서, 또 특히 영적 3rd level 해석만으로 해석해야 하는 잠언 ('Proverbs'는 '비유'라는 뜻)에서 '현명함'

Unconditional Election

(wisdom)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(잠8), 그리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, 그분의 마음을 품은 자(고전1:30; 빌2:5) 역시 포함됩니다. 잠언 30:24-26에서 이 '현명한 네 가지' 중 '강하지 못한 백성' (개미) 과 '약한 무리' (바위너구리)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'백성'임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'현명한 바위너구리'를 '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' (마7:24-27; 눅6:46-49)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'백성'은 주 그리스도의 'wisdom'(고전1:24, 30; 엡5:15; 유25)을 지닌, 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닦아 놓은 (고전 3:11) 그들임이 확실해 집니다. 더욱 흥미로운 것은 '바위너구리는 '보물/숨긴 것'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흔히 성경에서 '보물'로 표현함과 비교됩니다 (잠31:10; 마13:44-46; 고전 3:12).

위에서 고대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외부교회와 평행을 이루며 이 두 구, 신약의 외부교회는 영원한 교회, 위에 있는 예루살렘 (갈4:26)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. 지금 공부하는 시편 33:12의 가장 정확한 commentary는 신명기 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자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십니다. 이 설명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백성을 선택하심과 동일시됩니다. 6절과 7절의 '택하시어'와 '택하신 것은'은 현 구절의 '택하신' ('chosen')과 같습니다.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 (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의도)는 1) '특별한 백성'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, 그리고 2)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며, 절대로 다른 그 어떤 민족에 비해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다고 하십니다.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다고 ('fewest') 하시는데, 이 표현은 아예 이스라엘이라는,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(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바로 이방국인 갈대아(Chaldees)의 우르(Ur) 사람이었으므로) 가르칩니다. 그들의 존재하게 됨은 'ex nihilo' ('out of nothing'), 곧 '무(無)에서 유(有)'이었던 것입니다.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창조하시는 초자연적 행위 없이는 '믿음의 백성', '그리스도의 신부', '마음의 유대인', 등등의 어구를 적용할 수 있는 구원받은, 영생을 입은 '하나님의 민족'은 존재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. (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'자유의지'와 같은 거짓을 내세우고 진리로 가르치는 신약시대의 외부교회를 고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가르치며 이 심판은 마지막날에 있을 그 우주적인 심판의 확실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) 이 진리는 에베소서 1:4, 2:10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. '거룩하고 흠' 없도록, '선한 일들을 위하여... 그것들 가운데서' 행하도록,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지 않는 자들 (이스라엘이 예표하듯, 'fewest')을 택하시고 살리시사 (엡 2:1), 존재케 하사, 구원의 재생으로 '창조'하신 것입니다. 모든 선한 행위는 오직 구원 이후에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이지요. '생명'이 없이는 '행위'가 불가능한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신명기 7:6의 '특별한' ('special')은 출애굽기 19:5, 시편 135:4의 '독특한 보물' ('peculiar treasure')과 같으며 이 가르침은 위에서 논했습니다.

성경에서의 '유업' ('inheritance')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- A. 출애굽기 15:17 (성경에서 흔히 '산'은 '왕국'을 말합니다 - 렘51:25)과 신명기 9:26, 29를, 또 스가랴 2:10과 고린도후서 6:16을 비교할 때 '유업'의 한 의미는 당신의 유업인 하나님의 '백성'임을 알 수 있습니다.
- B. 신명기 4:20, 38과 마태복음 5:5절, 25:24절은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할 '하나님의 왕국'인 새 하늘과 새 땅임을 가르치지요.
- C. 신명기 10:9와 에스겔 44:28 (x2)은 '하나님께서' 바로 그 백성의 유업 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(이사야서 28:5 참고).
- D. 에베소서 1:11, 14, 18은 the Elect가 누릴 '영생'이 또 유업임을 말씀합니다. 현 구절의 '유업'은 물론 'A'에 해당되는 '하나님의 백성'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 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분의 날개 밑에서, 완벽한 안전 가운데, 영원히 정결하게 지키십니다 (계19:7, 8). 이것은 바로 TULIP의 'P'인 'Perseverance of the Saints'(성도들의 견고)가 가르치는 진리이며, 빌립보서 1:6, 데살로니가전서 5:23, 요한일서 5:18, 유다서 1, 24와 같은 구절들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.

Unconditional Election

바로 이렇게 감탄할만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. 그렇기에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실로 '복'된 것입니다.

[Task ONE](#)

[HOME](#)